

조직신학반

교재

데이빗리목사 엮음

홀리타임즈

목차 CONTENTS



제 1 장 조직신학의 유익 _ 5

제 2 장 신론 _ 13

제 3 장 인간론 _ 43

제 4 장 기독론 _ 59

제 5 장 구원론 _ 69

제 6 장 교회론 _ 90

제 7 장 내세론 _ 109







1 장

/

조직신학의 유익

제 1 장 조직신학의 유익

훈련 목적

- * 조직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 조직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 보다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을 바로 세워나간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워바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조직신학반 교재를 마스터한다.

1. 조직신학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가. 조직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 1) 조직신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 2)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 3) 조직신학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지 알게 합니다.
- 4) 모든 그리스도인은 체계적인 성경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조직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 1) 목사에게 있어서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에 의하지 않는 그 어떠한 목회 활동은 불법입니다.
- 2) 조직신학은 목회자로 하여금 바른 신학을 정립할 수 있게 해 줍니다.

2. 조직신학은 성경적이며 교회적입니다.

가. 조직신학은 성경적입니다.

- 1)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 2) 성경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3) 성경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근본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며 기독교 신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조직신학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 1)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개인의 견해에 국한되거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2) 교회는 올바른 조직신학에 의해 운영

되어야 합니다.

3. 조직신학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 조직신학은 전도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1)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을 때 효과적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나. 주일학교의 교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 1) 주일학교 교사는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 2) 하나님의 진리는 매우 정확하며 질서적이며 논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 역시 매우 논리적이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
가 있습니다.

4. 조직신학은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교회는 공통적인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 교회는 한 기독교 신앙 위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엡 4:5).

- 1)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과 이단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 2) 기독교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딤후 1:4).

나. 많은 교파와 교단의 형성은 조직신학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1) 조직신학이 바로 서있지 못한 결과로 인해 오늘날 많은 교파와 교단이 형성

[엡 4:5]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딤후 1:4] 같은 믿음을 따라 된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좇아 은혜와 평강
이 네게 있을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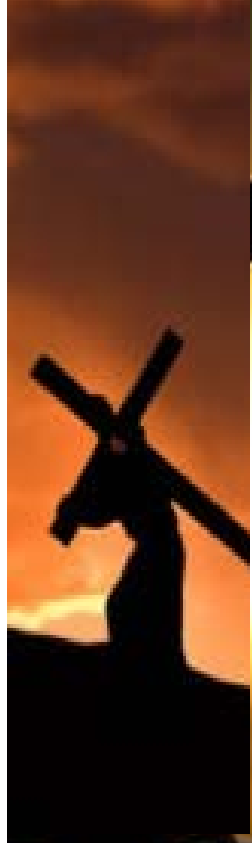
되었습니다.

- 2) 우리는 사상적 일치가 되는 조직신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 조직신학은 이단을 배격합니다.

- 1) 이단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잘못 해석함으로써 생겨납니다.
- 2) 성도들이 조직신학을 배우지 않을 때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조직신학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 3) 교회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교리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묵상 모임도 필요합니다.





2 장

/

신론

제 2 장 신론

훈련 목적

- * 조직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 조직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 보다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을 바로 세워나간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위바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조직신학반 교재를 마스터한다.

1.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들

가. 이성적 논증들

- 1)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어떤 원인의 결과이며 어떤 결과가 존재하면 그 원인도 존재합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 2)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웅장함과 동식물과 사람의 구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증명합니다(시 94:8-9).
- 3) 자연만물과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자연만물과 사람은 결코 하나님 없이 완전해 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롬 1:19-20).
- 4) 사람에게에는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천벌을 받는다는 도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5)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

[시 94:8] 백성 중 우준한 자들이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이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시 94:9]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롬 1:19]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시 36:9).

나. 성경적 증거들

- 1)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창 1:1).
- 2)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출 3:14).
- 3)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신 4:32-35).

2. 하나님의 속성들

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 1)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요 4:24).
 -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말은 인간처럼 몸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

[시 36:9]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출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신 4:32]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신 4:33]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신 4:34]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신 4:35]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십니다(눅 24:39).

2) 십계명에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금지 되었습니다(출 20:3-4).

-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행위는 큰 죄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3)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손, 팔, 귀, 눈 등의 표현은 다만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출 3:20, 출 6:6, 사 37:17).

-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골 1:15), '보이지 아니하는 자'(딤후 1:17),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딤후 6:16),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요 1:18)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눅 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 이나는 있느니라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이레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3: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가지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야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 6: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사 37:17]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골 1:15] 그는 보이지 아

다.

4)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지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5)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창 1:26-28).
-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image)을 따라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과 같은 모습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자니

[딤후 1:17]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6:16] 오직 그에게 만족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요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
들어졌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
다.

6) 때때로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셨습
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
했습니다(창 18장).
- 야곱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
니다(창 32장).
-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70인 장
로들도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출
24:9-10).
- 모세는 지성소에서 늘 하나님과 대
면했습니다(민 12:8).
-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님을 만났습니다(행 9장).
- 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지
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일 뿐입니다. 비록 저
들이 직접 대면했을지라도 그것은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
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
서
[출 24:10] 이스라엘 하나
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
이 청명하더라

[민 12:8] 그와는 내가 대
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
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 형상을 보겠
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
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서
나타나신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처럼
생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 1) 하나님은 본체와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시 145:3).
- 2) 무한하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합 2:14, 렘 23:24).
- 3)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 4)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십니다.
 -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늘이 땅과 비교되는 것처럼

[시 145:3]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합 2:14]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 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렘 23:2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

럼 이 세상은 땅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으로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곳에 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합 2:14).

-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은 곧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때 가능합니다.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하나님의 속성 또한 무한하십니다.

-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며 거룩하

[합 2:14]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 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심도 무한하시고 의로우심도 무한
하시고 선하심도 무한하십니다.

- 그 무엇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시며
완전 그 자체이십니다.

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1)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십니다.

-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영
원 후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십니다
(시 90:2).

- 하나님께는 전과 후가 없으며 과거
와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
어서는 항상 현재입니다(계 1:8).

2) 하나님은 시작이 없이 영원히 스스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절대주권자이십니다.
-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
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

[시 90: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
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
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
시 90:2

[계 1:8] 주 하나님이 가라
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
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르쳐 주셨습니다(출 3:13-14).

라.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 1)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시 102:27, 말 3:6, 약 1:17).
- 2)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지 않는 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요 5:17).
- 3) 가끔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출 32:14, 삼하 24:16, 온 3:10).

마.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 1)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크심은 자연과 만물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 13:13] 나귀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들 중 모든 창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출 13:14]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시 102:27]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

[말 3:6] 나 여호와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약 1:17]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 5: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출 32:14] 여호와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삼하 24:16]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

- 욥은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신 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욥 12:13).
- 히브리서 기자 역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고백했습니다(히 4:13).

2)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 하나님의 지식은 명확하고 완전하며 총괄적입니다(롬 11:33).

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 1)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창 17:1, 창 18:14).
- 2)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십니다. 기적이 항상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시기 때문입니다.
- 3) 하나님은 스스로 죽으실 수 없고 변화되실 수 없고 범죄하실 수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딤후 6:16, 딤후 2:13, 삼상 15:29).
- 4)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

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와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욥 3:10]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욥 12:13]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히 4: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발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창 17:1] 아브람의 구십구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8:14]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12).
-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막 9:23).

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 1)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며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십니다.
- 2)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일치할 때 비로소 의롭게 됩니다(신 6:25).
- 3) 하나님은 본질상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우십니다.
 - 하나님은 의로 피조물을 다스리시

들이 있으리라

[딤후 6: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후 2: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함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삼상 15:2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신 6:25]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고 피조물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의
로운 재판장이십니다(시 9:9, 딤후
4:8).

4)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
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롬 2:5-8).

5)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더욱 완
전해 졌습니다.

- 만일 예수님의 구속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불의
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
니다(롬 5:1).

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1)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십니다(시
106:1).

2)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선하

[시 99] 여호와께는 또 압제
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
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
다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
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
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라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
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
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
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
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
하시되

[롬 2: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
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
생으로 하시고

[롬 2: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
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하
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
리자

[시 106:1] 할렐루야 여호
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

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십니다(마 5:45).

- 3) 하나님은 인류를 아담의 원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요 3:16).

-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지 알 주시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더 크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롬 3:24)
-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한 은혜입니다(엡 2:8).

- 4)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출 34:6).

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마 5: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출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 1)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참되십니다(신 7:9).
 - 하나님은 속과 겉, 말과 행위가 똑같으십니다(롬 3:4, 민 23:19).
 - 하나님은 중심과 외적인 것이 동일하십니다.

3. 삼위일체(三位一體)

가. 한 하나님.

- 1)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 성경은 오직 한 하나님만이 존재하심을 증거합니다(출 20:3, 신 6:4, 고전 8:6, 딤후 2:5).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문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정의하였다.
- 2)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삼위일체 본체의

[신 7: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롬 3:4]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 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민 23:1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출 20:3]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신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님인 여호와시니

[고전 8:6]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딤후 2:5] 하나님은 한 분

단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 하나님은 본체(substance)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 하나님은 본질(essence)에 있어서도 하나이십니다.
- 본질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개념을 통털어 말하는 단어이지만, 본체는 보다 구체적인 존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니케야 신조는 성부와 성자가 같은 본질을 가지신다고 정의했습니다.
-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러나 그들은 세 영원자들이 아니고 한 영원자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
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나. 세 인격

1) 세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 인격(person)이란 말은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내가 의미하는 인격은 신적 본체 안의 한 실존 즉 다른 둘과 관계되어 있으나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특성들로 구별되는 실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 안에 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세 인격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서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히 아

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정의했습니다.

-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세 인격체로 구분하셨습니다(마 3:16-17, 요 14:16).

2) 하나님의 본체는 세 분의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체로서 영원히 함께 존재하십니다.
- 하지만 각각 다른 본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본체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 성부하나님도 하나님이시며 성자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하나님도 하나님 되십니다.
- 두 인격을 합한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는 각 인격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들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어 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격과 본체로 각각 구분하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일위일체하나님 또는 삼위삼체 하나님 설은 이단학설입니다.

3)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 이단학설

- 일위일체설: 이것은 단일론이라고도 말하며 오직 한 하나님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학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아버지 한 분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비롯하여 많은 종파에서 일위일체설을 믿고 있습니다.
- 일위삼체설: 이것은 양태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자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 믿

는 학설입니다.

- 삼위삼체설: 이것은 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본체과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세 하나님께서 각각 서로 다르다고 믿은 학설입니다.

다. 세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관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관계는?

- 세 분의 하나님은 신적 본체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요 3:17, 요 15:26).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써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 2) 세 인격은 존재에 있어서 구별되십니다.
- 성부께서는 성자를 낳으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십니다.
 -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과 성자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 3) 세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 구별되십니다.
- 성부께서는 만세 전에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 성자께서는 2천년 전에 택한 백성을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 성령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도와십니다. 중생과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4. 예정

가. 모든 일들이 예정되었습니다.

1) 하나님께 만세 전에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은 다 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 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 든 일어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 적이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의 창조 자이지 않으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되지도 않으며 또한 제2 원인 들의 자유나 우연함이 제거되지도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 용됩니다. 우주의 모든 일이 하나 님의 예정에 의해 적용됩니다(롬 11:36, 엡 1:11).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
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
암고 주에게로 돌아감
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엡 1:11] 모든 일을 그 마
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
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이 되었으니

-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사 48:11, 사 43:7).

2) 예정설에 대한 증거들

-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적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사 37:26, 롬 11:36).

3)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특성

-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작정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 48:11]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 37:26]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할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4) 하나님의 예정설에 대한 이단학설

- 예임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예정하셨을지라도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택하셨을지라도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임설은 예정설의 은혜를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학설입니다.
- 속명론: 세상의 모든 일이 미리 결정되었다고 믿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

도 필요치 않으며 매우 소극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생각입니다. 속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며 그 어떠한 노력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히 11:6, 계 22:12, 마 7:7).

[히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 7: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나.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었습니다.

- 1) 하나님은 만세 전에 구원 받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4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

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이렇게
예정된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
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
되어진 것이며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명확해서 더해지거나 감
해질 수 없다.”

2)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버려두심입
다.

- 예정의 첫번째 요소는 선택입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5는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
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
기 전에 그의 영원하시며 불변하
신 목적과 그의 은밀한 계획과 기
쁘신 뜻에 따라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
셨고; 신앙이나 선행들이나, 혹은
그것들 가운데서 끝까지 견딤이

나, 혹은 피조물 안의 다른 어떤 것을 조건들로나 그를 그것으로 이끄는 원인들로 미리 아심이 없으셨으며;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

-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요 17:9, 롬 8:29-30).
- 두 번째 요소는 버려두심(reprobation)입니다. 버려두심은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셨다는 의미입니다(마 13:11, 요 17:9, 유 1:4).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7은 다 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공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는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요 17: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 13:11]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요 17: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유 1: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을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위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지
나쳐버리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
서 그의 영광스런 공의를 찬송하
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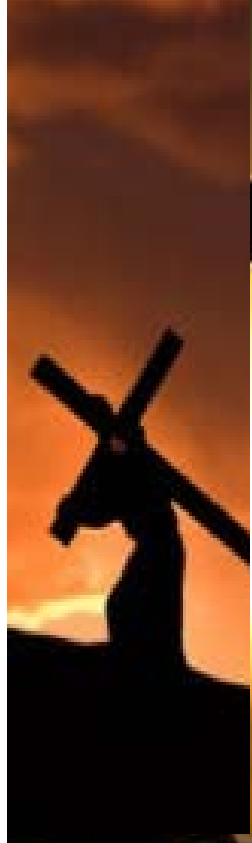
-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선택 자체
는 버려두심과 대조시키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3 장

/

인간론



제 3 장 인간론

훈련 목적

- * 조직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 조직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 보다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을 바로 세워나간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위바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조직신학반 교재를 마스터한다.

1. 사람의 기원

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 논의하셨습니다(창 1:26).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 되었습니다.

-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창 2:7).
-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창 2:21-22).
-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창 2:18).
-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길 원하십니다(창 2:24). 한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을 뜻하기 보다는 육신과 영혼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자가 남자로부터 만들어져다고해서 남자의 소유물이나 남자보다 못한 존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 2: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 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여기시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2. 인간의 구성요소

가.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 하나님은 흠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창 2:7). 생기와 생령은 모두 영혼과 연관된 말입니다. '생기'의 히브리어는 <네샤마>인데 이 단어는 '생령'의 <네페쉬>와 연관된 단어로서 모두 '숨', '호흡', '영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인간의 구성요소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설이고 다른 하나는 삼분설입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 이분설은 육과 영혼이고 삼분설은 육, 혼, 영입니다.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것이 이분설이고 영과 혼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삼분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설과 삼분설은 서로 같은 내용입니다.
-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영과 혼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 4:12, 살전 5:23).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3. 죄를 짓는 인간

가. 천사들의 타락

- 1) 천사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
 -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습니다.
 - 하지만 루시퍼는 하나님과 견주려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고 말았습니다(사 14:12-14, 계 12:7-9).

- 결국 그는 하늘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죄의 결과로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계 12:9).
- 사탄이 이 세상에 쫓김을 당했을 때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이 그와 함께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그 수가 전체 천사의 1/3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계 12:4, 유 1:6).

2) 이 세상에 떨어진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 죄를 범함으로써 이 세상으로 쫓겨난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유혹하고 있습니다.
-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자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 12: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유 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따먹도는 죄를 범케 했습니다(계 12:7-9).

- 사탄은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입니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다.

나. 인간의 타락

- 1) 인간의 타락은 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은 것이 인류가 최초로 지은 죄였습니다.

- 모든 인간은 하와의 지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상태는 불사불멸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필사필멸의 상태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육적으로 사망을 겪어야 했고 영적으로도 사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육적인 사망을 겪어야 하지만 영적인 사망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롬 8:9).

2) 죄로 인한 결과

-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을 잃어 버렸으며 거룩함과 의로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움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죄악스러운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
니다.

- 원래 없었던 수치심과 죄의식을 갖
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는 벌거 벗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못 느꼈습니다(창 2:25). 하지만
죄는 저들로 하여금 수치심과 부
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창
3:7).
-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
리하도록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을 피
해 숨었습니다(창 3:8).
- 죄로 인해 인간은 고통과 수고를 경
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와는 자식
을 낳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
니다(창 3:16). 남자는 일을 해야
만 소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
었습니다(창 3:17-19).

[창 2:25]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 3: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
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 3:8] 그들이 날이 서늘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
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
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창 3:16] 또 여자에게 이
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
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
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
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
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7] 아담에게 이르
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
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
록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
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
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리라

[창 3:18]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
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 3:19] 네가 얼굴에 땀

-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에덴동산의 땅은 옥토였으나
죄로 인해 땅은 개간을 해야만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3) 죄의 개념과 죄로 인한 죄책감

-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요일 3:4).
- '죄'는 히브리어 <하타트>로서 '표적에서 벗어났다'란 뜻입니다.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4문답에서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 죄는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합니다.

이 흠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일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져오게 합니다.
- 육신의 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요일 3:15, 마 5:28, 마 15:19-20).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다. 원죄와 자범죄

1) 원죄의 전가

-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전이되는 것처럼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이되었습니다.
-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롬 5:15-19).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적인 죄가 없는 이유는 아담의 죄가 전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15: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마 15: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롬 5: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롬 5: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

이되었기 때문입니다(롬 3:10).

-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히 9:27). 이것은 육신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육신의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자신의 행한 행실에 대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계 20:12-15).

2) 자범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멀어짐

- 원죄를 입고 태어난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해 인간은 일상 삶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4는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하여 전혀 싫증나며 무능력하며 반대하게 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본래의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서왕노릇 하리로다

[롬 5: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3: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습니다.

- 모든 자범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범죄의 형벌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떤 자범죄는 더 큰 형벌이 따르고 어떤 자범죄는 형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50문답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든 범죄들이 똑같이 극악한 것은 아니고, 어떤 죄들은 그 자체에 있어서 그리고 몇 가지 더 가중된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다”고 하였습니다.
- 자범죄 중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범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자범죄에 비하여

죄의 형벌이 작습니다(눅 12:47-48). 하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서는 매우 큰 형벌이 따릅니다(민 15:29-30).

- 자범죄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마 12:31). 그러한 죄는 성령을 훼방하는 죄입니다. 성령훼방죄는 성령사역을 부인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행위도 성령훼방죄에 속합니다(히 6:4-6, 히 10:26-27).
- 칼빈은 성령 사역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거나 훼방하는 행위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고의적으로 부정하며 대항하는 자는 배교의 죄를 짓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눅 12: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증은 많이 맞을 것이요

[눅 12: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증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마 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히 6:4]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히 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 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 10: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 10: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 자범죄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구원은 예정에 의해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롬 10:9-10). 다만 자범죄는 하늘 나라의 상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범죄가 많을수록 천국의 상급은 없어질 것입니다(고전 15:40).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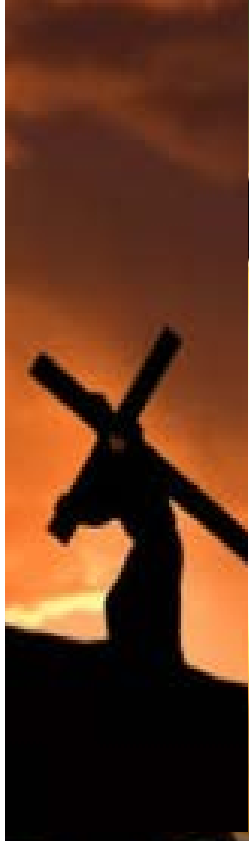
[고전 15: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 장

/

기독론



제 4 장 기독론

훈련 목적

- * 조직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 조직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 보다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을 바로 세워나간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위바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조직신학반 교재를 마스터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

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1)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빌 2:6-8, 요 1:14).
-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
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
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
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들과 같이 되었고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
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
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
심이라

탄생하셨습니다(마 1:18-23).

2)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계셔야 했습니다.
- 인간의 원죄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 성경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셨으며 죄인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히 4:15, 요일 3:5, 고후 5:21, 갈 3:13).

4)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인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 1:19]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마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2]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마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히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

것은 매우 극심한 고난이 되었을 것입니다.

-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마 27:46, 갈 3:13).
-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습니다(벧전 3:19).
-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50번째 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후의 낮아지심은 장사되심과 죽은 상태에 머무심과 제3일까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심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지옥에 내려가시사’라고 표현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1)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

가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일 3: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마 27:46]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벧전 3:19]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능히 죄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셨으며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 그는 태초부터 계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요 17:5, 골 1:16, 요 1:1-3).

2.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가. 부활하신 예수님

- 1)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 예수님과 직접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

[요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거했습니다(마 28장, 막 16장, 눅 24장, 요 20장 참조).

-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었습니다(행 2:22-24).
-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행 13:30-31).

2)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의미

-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대속사업이 참됨을 입증합니다(롬 1:4).
-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 줍니다(벧전 1:3).
-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롬 4:25).
-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계 1:18, 히 7:25, 히 9:24).

[행 2:22] 이스라엘 사람 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도 이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행 2: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행 2: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행 13:30]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지라

[행 13:31]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롬 1: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벧전 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 예수님의 속죄사역

가. 왜 예수님의 속죄는 필요한가?

- 1)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갈 1:4).
- 2)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실현된 것입니다(요 3:16).
- 3)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원죄에 대한 형벌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요구를 갚기 위해 주님께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갈 3:14, 고후 5:21).

나. 속죄란 무엇입니까?

- 1) 속죄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롬 4:25] 예수는 우리 범 죄함을 위하여 내어죽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계 1: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갈 1: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 10:12).

- 구약의 제사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레 1:4).
- 예수님은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사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형벌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고후 5:21, 갈 3:13, 사 53:5).

2) 속죄는 '구속'을 뜻합니다.

- '구속'이라는 말은 속전을 지불하고서 어떤 사람을 구속에서 풀려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원죄의 죄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마

[히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레 1: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이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딤후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

20:28, 딛 2:14).

3) 속죄는 '유화'(宥和, propitiation)를 뜻합니다.

- '유화'란 어떤 사람의 진노를 가라 앉히고 누그러뜨린다는 의미입니다.
-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 앉히셨습니다(롬 3:25, 히 2:17).

4) 속죄는 '화목'을 의미합니다.

-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롬 5:10, 고후 5:18).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히 2:17] 그러므로 저가 법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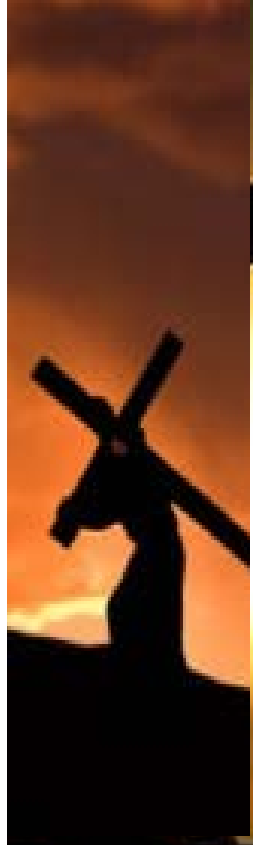
[고후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5 장

/

구원론



제 5 장 구원론

훈련 목적

- * 조직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 조직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 보다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을 바로 세워나간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워바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조직신학반 교재를 마스터한다.

1. 하나님의 은혜

가. 일반적인 은혜

- 1)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 2) 일반은혜는 자연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

[행 17: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 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 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 시는 자이심이라

[마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 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 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십니다(행 17:25, 마 5:44-45).

- 3) 만민에게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며 마음에 기쁨을 선사합니다(시 145:9, 행 14:16-17).
- 4)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심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창 1:28).
- 5) 모든 사람에게 종교적인 마음을 주십니다(롬 1:19-20, 행 17:27).
- 6) 모든 사람에게 도덕의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에는 모두 양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에는 믿음은 없을 지라도 양심은 있습니다. 이 양심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롬 2:14-15).

나. 특별 은혜

- 1) 성령세례를 주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시 145:9]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행 14:16] 하나님이 지난 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행 14:17]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롬 1: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행 17: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롬 2: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 성령세례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 성령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요일 4:15).
-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고전 3:16).

2)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

-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엡 1:13-14).
- '인치심'이란 말은 '보증'을 말합니다. 마치 집이나 건물을 계약할 때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

에게 율법이 되나니

[롬 2: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요일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엡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엡 1:14]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리의 구원에 대해 도장을 찍듯이
인치셨습니다.

-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혜입니다.

3)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

-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하나님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요 14:16-17).
- 예수님의 약속하신대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행 2:1-4).
- 누구든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롬 8:9).
-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 14: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행 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
문입니다(고전 12:3, 롬 8:15-16).

- 성령세례와 성령인치심과 성령내
주하심은 모두 동시에 이뤄집니
다.

4) 성령님과 의 교통하는 은혜

- 성도는 모두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
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롬
8:9).
-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가
르침대로 살게 하십니다(요 16:8,
요 16:13).
-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마치
친구가 함께 하듯이 우리와 교통
하십니다(엡 4:30, 살전 5:19).

5) 성령충만의 은혜

[고전 12:3] 그러므로 내
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
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
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롬 8:15] 너희는 다시 무
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
라 부르짖느니라

[롬 8:16] 성령이 친히 우
리 영으로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
거하시나니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
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
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
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
니라

[요 16: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
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하시리라

[요 16:13] 그러나 진리
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
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
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엡 4:30] 하나님의 성령
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

-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엡 5:18).
- 성령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배우자와 함께 산다 할지라도 모든 부부가 행복한 부부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성령충만한 상태는 목마름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충만입니다(요 7:37-39, 고전 12:13).
- 성령충만은 성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직분자에게 있어서 성령충만은 매우 중요합니다(사 61:1).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먼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살전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 7: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신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 61:1] 주 여호와와 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이 중요합니다(행 1:8).

2. 중생(重生)

가. 중생이란?

- 1) 중생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중생은 거듭났다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요 3:5-6).
- 2) 중생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 이뤄 집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 3)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이며 주권적인 활동입니다. 인간은 피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요 1:13).
- 4) 중생은 우리의 영혼육이 변화되는 사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율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건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우리의 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
다(겔 36:26, 엡 4:22-23).

나. 중생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 1) 중생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만일 당신이 중생한 사람
이라면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삶 가운
데 나타나야 합니다. 만일 회개가 없거
나 믿음이 없다면 중생했다고 볼 수 없
습니다.
- 2) 비록 예수께서 우리의 원죄를 구속하
셨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
자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살
아야 합니다(요일 1:9).
- 3) 예수께서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구속
하셨다고 생각하고서 그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

[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
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엡 4:22]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
어버리고

[엡 4: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
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
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
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
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
이요

각하는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 회개와 믿음

1) 회개란 무엇인가?

- 회개는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롬 3:10).
- 죄를 인식한 다음에는 죄에 대한 애痛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는 결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시 51:17).
-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요일

[롬 3:10]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 51:17]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1:9).

-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완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민 5:7, 눅 19:8).
-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지은 여인을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요 8:11).

2) 믿음이란 무엇인가?

-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 집니다. 믿음은 은사의 하나입니다(고전 12:9).
-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믿음에 의한 고백

[민 5: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눅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요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고전 12:9]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입니다(마 16:16-17, 고전 12:3).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1에서는 믿음에 대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시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나고; 또한 그것에 의해 또 성례들의 집행과 기도에 의해, 그것은 자라고 강해진다."
-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상도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칭의(稱義)

1) 칭의는 무엇인가?

-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말합니다.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3문답은 “칭의(稱義)는 하나님의 값으신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에서 그는, 우리에게 전가(轉嫁)되고 믿음으로만 받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용납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2)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가?

-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갈 2:16, 롬 3:28).
-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롬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롬 3: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5:1, 롬 4:4-5).

라. 양자(養子)

1) 양자는 무엇인가?

- 소요리문답 34문답, “양자(養子, 자녀로 삼으심)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에 들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라고 말합니다.
- 중생이 새 생명의 시작이라면, 양자는 새 신분의 시작입니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에 의해서입니다(요 1:12-13).

2) 양자의 권리

-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롬 8:17, 요 1:12).
-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롬 4: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롬 4: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있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롬 8:15).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롬 8:17).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3. 성화(聖化)와 견인(堅忍)과 영화(榮化)

가. 성화의 본질

1) 주님처럼 닮아가야 합니다.

- 성화는 영혼육의 변화를 말합니다. 영적, 혼적,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화되어야 합니다(살전 5:23).
-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창 1:26).
-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 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레 11:45, 엡 1:4,
골 3:10, 벧전 1:15).

2) 성화의 기본 요소

- 성화에는 반드시 중생, 회개, 칭의가 있어야 합니다.
- 성화가 빠진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화는 구원받는 자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성화의 방법

-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저절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되려고 너희를 애
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
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
희도 거룩할지어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
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
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
게 하시려고

[골 3:10] 새 사람을 입었
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
신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
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
는 자니라

[벧전 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
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로 성화가 이뤄집니다(요 15:4, 빌 1:6).

- 주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고전 3:16).
- 주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성화되도록 도와 줍니다(롬 8:26).
- 성화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은 성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갈 5:16, 갈 5:22-23).
- 성화를 이루기 위해 말씀, 성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삶가운데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성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모임과 예배 및 성찬식에 열심히 참여해야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빌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열심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골방기도와 성도와 함께 드리는 합심기도 및 금식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성도의 견인(堅忍, perseverance)

1)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1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케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 성경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요 10:27-28, 딤후 4:18).
-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마 28:20).
-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도록 도우십니다(고전 1:8, 딤후 1:12, 벰전 5:10).

다. 성도의 영화(榮化)

1) 영화란 무엇인가?

- 영화(榮化, glorification)란 성도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성도 역시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영화롭게 됩니다(벰

[요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딤후 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벰전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3:21).

- 영화를 입은 성도는 죄성이 없고 범 죄할 수도 없으며 죄를 범할 수 없게 됩니다.
- 성도의 부활의 몸은 아담의 상태처럼 범죄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으며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고전 15:42-44).

2) 영화롭게 천국에 입성합니다.

- 성도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온전히 거룩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 소요리문답 37문답, “신자들은 죽을 때, 그 영혼들이 완전히 거룩해지며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라고 말합니다.
-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영화롭게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롬 8:30, 빌 3:20-21).

[빌 3: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전 15: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 15: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빌 3: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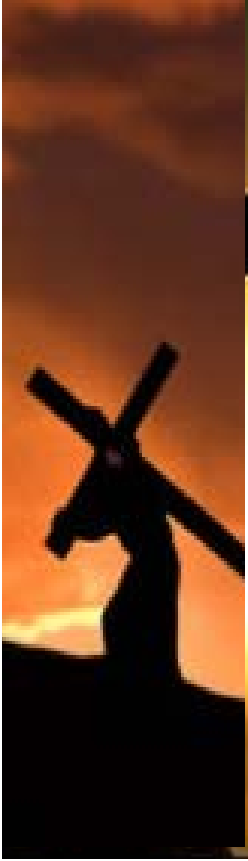
[빌 3: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6 장

/

교회론



제 6 장 교회론

훈련 목적

- * 조직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 조직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 보다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을 바로 세워나간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워바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조직신학반 교재를 마스터한다.

1. 교회의 속성

가. 교회의 하나됨(unity).

- 1) 교회의 첫번째 속성은 하나됨입니다.
 -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과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 모든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모두 같은 교회이며 예수님에 의해 하나된 교회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모든 시대를 걸쳐 동일합니다.
- 오직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며 인간의 구원에 대해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딤후 2:5).

3) 하나됨에 대한 영적 세가지 측면

-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고전 12:13).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을 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

[딤후 2:5]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 교회는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요 17:20-21).
-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서 안 됩니다. 교회끼리 서로 싸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파들끼리 싸워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고전 1:13).

[요 17: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고전 1:13] 그리스도께서 여찌 나누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나. 교회의 거룩함(holiness)

1) 교회의 두번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엡 5:26-27).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요소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2, 히 10:10, 고전 3:16).

2) 교회는 교리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수하며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리적으로 부패되었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교회의 교리가 부패해졌습니다.

3) 교회는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 오늘날 교회는 윤리적으로 더러워지고 부패되었습니다.
- 교회들은 세상 문화의 향락에 빠져 살며 세상의 정욕을 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 술, 담배를 탐하며

[고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히 10: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딤후 3:1]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딤후 3: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횡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딤후 3:3]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

낙태,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딤후 3:1-4).

-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정욕을 버트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엡 6:10-13).

다. 교회는 세계적임(catholicity)

1) 교회의 세번째 속성은 세계적입니다.

-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각 족속과 각계계층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거대한 가족입니다(엡 2:19-22).
- 사도신경에 언급되고 있는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세계적 교회를 뜻합니다(the catholic church).

2. 교회의 권세

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아니하며

[딤후 3:4] 배반하여 팔며 조금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엡 6: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엡 6:11]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 교훈권

1) 교회의 첫번째 권세는 교훈권입니다.

- 교훈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마 28:20).
- 성도는 마땅히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딤후 2:2, 딤후 4:2).

2)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호했습니다(빌 1:7).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딤후 2: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딤후 4:2]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빌 1: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 치리권(治理權)

1) 교회의 두번째 권세는 치리권입니다.

- 주님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치리권세를 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가운데 운영
되길 원하십니다(고전 14:33, 고전
14:40).

2) 주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 교회는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부
패한 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권
징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 봉사권

1) 교회의 세번째 권세는 봉사권입니다.

- 봉사권은 교회 안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권세입니
다.
- 교회는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백성을 섬기셨기 때문입
니다(마 4:23, 마 20:25-28).
- 주님은 헐벗고 굶주린 성도를 구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마 25:40).

[고전 14:33] 하나님은 어
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
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이시니라

[고전 14:40] 모든 것을 적
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
라

[마 4:23] 예수께서 온 갈
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
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
성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
한것을 고치시니

[마 20:25] 예수께서 제자
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
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
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
거니와

[마 20:26] 너희 중에는 그
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
고

[마 20:27] 너희 중에 누구
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
리라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 초대교회는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행 2:44-45, 롬 12:13).
- 초대교회에서는 병자를 서로 치유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약 4:14-15).
- 오늘날에도 당연히 이러한 구제와 치유는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행 2: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행 2: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롬 12: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약 4: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약 4: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3. 교회의 기능

가.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 1) 성도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 2) 예배는 매 주일 첫날 곧 주일에 규칙적으로 정한 장소에 성도들이 모여 힘써 주님께 기도와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고전 16:2, 히 10:25) 성경을 읽고 강론합니다(딤후 1:9).

[고전 16:2]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히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딤후 1:9]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나. 성도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 1)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의 전도 사명을 실천하지 않는 자입니다(마 28:18-20).
- 2)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끝날까지 인종이나 성별 귀천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행 1:8, 마 28:20).

[마 28:18]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다. 성도는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 1) 견덕은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 바 교제(fellowship)입니다.
- 2)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감소되게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고전 12:26).

라. 성도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1)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교회가 앞장서서 참여해야 합니다.
- 2) 궁핍한 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의 문제에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합니다(신 10:17-19, 약 1:27, 약 2:15-17, 요일 3:17-18).

4. 교회와 은혜의 방편

가. 은혜의 내적 방편

- 1) 믿음 :
 - 믿음이란 성도에게 있어서 없어서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전 12: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신 10: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 10:18]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신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약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약 2: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핍박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약 2: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천국은 믿음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의 동행함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 회개:

- 회개는 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깨끗함을 입지 못합니다(요일 1:9).
- 회개는 하나님과 보다 가까이 할 수 있게 합니다.

나. 은혜의 외형적 방편

1) 하나님의 말씀:

-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 우리는 성경말씀이 특별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유일하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일 3:17]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고도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습니다.

-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우치고 정죄하며 겸손케하여 회개하도록 합니다.

2) 성례 :

- 성례는 첫째,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보의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기 위함입니다.
- 둘째, 믿음과 여타의 모든 성령의 은혜를 강화하고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 셋째,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 넷째, 성도 상호간에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간직케 하기 위함입니다.
- 다섯째,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성

로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대요리 162문답). "이 성례 중 하나인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바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영생으로 부활한 것에 대한 표호이다"(대요리 165문답).

3) 기도 :

- 기도는 믿음을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 드리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도는 현재형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형으로 기도하거나 미래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끝마칠 때 "기도 드렸습니다"라고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기도방법입니다. "기도 드립니다"라고 현재형으로 마쳐야 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현재의 일이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기도의 종류로는 육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형태로 기도를 드리든 상관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금식 기도가 최고의 기도는 아닙니다. 말하는 기도방식도 있지만 말없이 드리는 묵상기도방식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말을 해야한다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5. 교회와 성령의 은사

가. 교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 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 주님은 성령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요 14:16).
- 3) 교회는 성령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엡 2:21-22).
- 4) 교회는 예배와 전도와 건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 교회를 위한 성령의 열매

- 1) 성령의 은사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치는 일, 권위(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이 있습니다(롬 12:6-8),

- 2) 또한 성령의 은사로는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일,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고전 12:8-10).
- 3)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갈 5:22-23).
- 4) 성령하나님은 성도를 인격적으로 구비시켜 섬김의 일을 잘하여 교회를 힘 있게 세우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십니다(엡 4:12-13).
- 5)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개교회와 개인의 믿음의 분량이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적절하게 주시기 때문에(고전 12:4-7), 어느 한 교회나 개인이 모든 은사

[롬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롬 12: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롬 12:8]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전 12:8]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전 12:9]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고전 12:10]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총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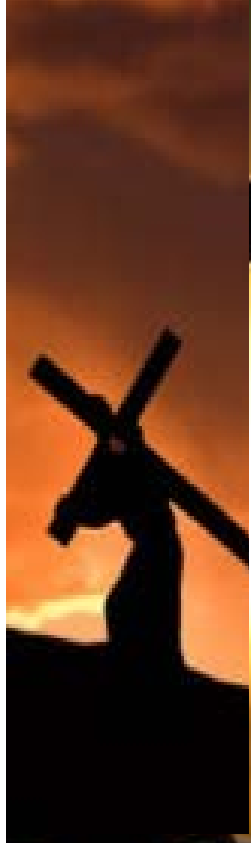
[고전 12: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전 12:5]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를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전 12:6]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전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 장

/

내세론

제 7 장 내세론

훈련 목적

- * 조직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 조직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 보다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을 바로 세워나간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워바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 * 조직신학반 교재를 마스터한다.

1. 사망과 영혼불멸

가. 사망

1) 사망의 의미

- 사망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 사망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전 3:20-21).

[전 3:20]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니 다 한곳으로 가거니와
[전 3: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 사망의 원인

-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주어졌습니다(창 2:16-17).
-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세의 삶을 위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히 9:27).

[창 2:16]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 영혼불멸

1) 영혼불멸(不滅, immortality)이란?

- 사람의 영혼은 사망 이후에도 계속 해서 존재합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1, “사람들의 몸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며 썩는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들은 죽거나 잠자지 않는 불멸의 실존(實存)으로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2) 영혼불멸의 성경적 증거

-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 영혼의

불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 갑니다(전 3:20-21).

- 성경은 죽음 이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증거합니다(눅 23:43, 시 73:24).
- 성경은 부활을 통해 영혼불멸을 증거합니다(단 12:2, 행 24:15).

2. 죽음 이후의 상태

가. 의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1) 구약성경의 증거

- 성도들이 죽은 후 영광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증거합니다(시 73:24, 시 16:10-11).
-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내용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창 5:24, 왕

[전 3:20]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곳으로 가거니와

[전 3: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눅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 73: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단 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행 24:15] 저희의 기다리는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시 73: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 16: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 16:1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하 2:11).

2) 신약성경의 증거

- 신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간다고 증거합니다(눅 16:22, 고후 5:8, 눅 23:43).

나. 악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1) 구약성경의 증거

- 구약성경은 악인이 죽은 후 ‘음부’(陰府, 쉼울)에 들어간다고 자주 표현하는데, 그 말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 음부<쉐울>라는 말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 신약성경의 증거

- 신약성경은 악인이 죽은 후 지옥에 감금되어 고통을 당한다고 증거합니다(눅 16:19-31 참조).
-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창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왕하 2:11]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 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눅 16: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고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고후 5: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눅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16: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타를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눅 16:20]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눅 16: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핏다

- 내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 재림의 확실성

- 1)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마 24:29-30).
- 2) 예수님은 친히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요 14:2-3, 행 1:11, 살전 4:16).
- 3)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증거했습니다(벧전 1:7, 약 5:7-8).
- 4)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매우 자세히 기록했습니다(계 1:7).

나. 주님의 재림 때의 모습

[눅 16: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고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눅 16: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마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행 1:11]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

- 1) 예수님의 재림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 24:30, 행 1:11, 계 1:7).
- 2)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초림 때는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스런 왕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마 24:30, 살전 4:16).
- 3)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살전 5:4).
 -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마 24:36, 막 13:32).
 - 예수께서 재림의 때를 모르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재림의 때는 철저히 비밀스러운 것

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 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행 1:11]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 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입니다.

다. 재림 때 나타나는 징조들

- 1)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많은 거짓된 목사들이 일어나며 이들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마 24:5, 마 24:11, 마 24:24).
- 2) 배교(背敎, apostasy)가 나타납니다.
 -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 배교는 기독교 신앙의 변질을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들의 미혹을 받아 신앙이 변절될 것입니다.
 - 이단 종파들의 특징: ① 그들의 교주들은 대체로 10대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직접 교통을 주장합니다.
 - ② 그들은 자기 집단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배타적 주장을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5: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마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막 13:32]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마 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마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

합니다. ③ 그들은 절박한 종말 의식을 강조합니다. ④ 그들은 외부와의 교제를 단절하며 현실도피적 경향이 있습니다. ⑤ 그들 속에는 빈번히 교주들의 부도덕한 사건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3) 전쟁이 일어납니다.

-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계적인 전쟁이 있습니다(마 24:7, 계 16:12-16).

4) 기근이 일어납니다.

- 주님의 재림 직전에 심한 기근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납니다(마 24:7).
- 지금도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 주님의 재림 직전에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마 24:7).
-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암이나 치료약이 없는 에이즈로 많은 사

[마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계 16:12]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계 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계 16: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16: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 16:16]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6) 지진과 천재지변들이 일어납니다.

- 주님의 재림 직전에 지진과 천재지변들이 있습니다(마 24:7, 마 24:29, 계 6:12, 계 11:13).
- 20세기 이후에는 지진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7) 적그리스도의 출현

- 주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을 유혹하며 꾀박할 것입니다(살전 2:3-4).

8) 세계 복음화

- 주님 재림 직전에 세계복음화가 일어납니다(마 24:24).
- 세계복음화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최종 신호입니다(롬 11:25-26, 롬 11:30-31).

[마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계 6: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계 11:13]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살전 2:3]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살전 2:4] 오직 하나님의 율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

4. 부활과 휴거

가.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1) 성경은 부활에 대해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반드시 이뤄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마 22:31-32).

-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행 24:15, 살전 4:16, 고전 15:12-20).

2) 누가 부활되는가?

-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의인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도 부활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부활됩니다(행 24:15).

- 의인은 복된 부활을 하겠으나 악인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롬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 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롬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롬 11:30]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롬 11:31] 이와 같이 이스라엘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 22:31]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마 22: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므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행 24:15]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

(단 12:2, 요 5:29).

3) 언제 부활이 되는가?

-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이를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뤄지는 것을 천천년설이라고 합니다.
-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이를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는 대략 천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뤄집니다.

4) 부활할 때의 우리 몸의 상태

- 부활은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2, “모든 죽은 자들은 본래와 같은 몸들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을 것인데, 그것들은 비록 다른 특질들을 가

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전 15: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고전 15: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행 24:15]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들과 영원히 다시 결합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아름답고 강한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고전 15:42-44).
- 의인이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몸이 될 것이며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고전 15:51-52).
- 의인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영광스런 몸의 형체를 닮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빌 3:21, 요 20:18, 눅 24:31, 살전 4:16-17).
- 악인의 부활체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부끄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단 12:2, 요 5:29).

나. 휴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환난 전의 휴거설

을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단 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전 15: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 15: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빌 3: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요 20: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 환난 전의 휴거설이란 대환난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일차적으로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바로 그때에 순교자들과 일부 의인들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2) 부분적 휴거설

- 이 견해는 환난 전 휴거설의 한 변형된 형태입니다.
-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오직 신앙생활을 잘 성도들만이 휴거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환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3) 환난 중간 휴거설

- 이 견해 역시 환난전 휴거설의 다른 변형된 형태입니다.
-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한 후에 7년 환난이 일어나는데 7년 환난이 전 3년 반 기간과 후 3년 반 기간으로 나뉘게 되고 전 3년 반 환난이 끝

[눅 24:31]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라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단 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날 때에 휴거된다는 설입니다.

4) 환난후 휴거설

-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환난이 끝나고 그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저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려진다는 견해입니다.
- 이 견해가 성경적입니다. 전통적이며 성경적인 개혁신학주의자들은 휴거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휴거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개념일 뿐입니다. 휴거하는 사람만 훌륭한 성도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성도가 아니라는 개념 자체가 옳지 않는 것입니다.

5. 천년왕국(千年王國)

천년왕국의 문제는 요한계시록 20:1-10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생겨났습니다.

가. 무천년설(Amillennialism)

- 1)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동안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신약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 2)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으로 보면 신약교회 시대가 사탄에 의해 결박된 시대가 되는 것인데 사실상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사뭇 잘못지 않는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

- 1)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 2) 천년설은 무천년설과 같이 천년왕국이 별도로 지상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교회

의 황금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3)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말세에 고통당하고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어서 후천년설의 견해는 성경적이지가 못합니다.
- 4) 또한 후천년설의 견해는 요한계시록 19-20장의 세대적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시대적 사건 순서는 ① 대환난시대 있고 (6-18장에 걸쳐 언급되었음), ②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 환난은 끝이 나며 (계 19:11-16), ③ 이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멸망당하고(계 19:19-21), ④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결박을 당하고 (계 20:2), ⑤ 이때 성도들의 첫째부활 이 이뤄지며(계 20:4-5), ⑥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천년동안 이 세상은 복된 천년왕국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며 성도들은 주

[계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 19:12]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 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 19: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 19: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계 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 19: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 19: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우

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됩니다(계 20:4-6). ⑦ 그 이후에 천년이 끝날 때에 잠시 사탄이 풀려나게 되고 사탄이 다시금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며(계 20:7-9), 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계 20:9), ⑨ 이때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계 20:10), ⑩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이뤄지며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계 20:11-15)는 내용인데 후천년설의 견해는 천년동안 사탄이 결박을 당한 내용과 의인들의 첫째부활과 천년왕국기간을 대환난 때보다 앞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 5) 현재 세계는 이단, 배교, 기근, 질병, 전쟁이 난무하며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는 때

고
[계 19:21]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노릇 하니

[계 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계 20:7]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여서 기독교의 황금시대라고 보기에는
사뭇 맞지 않아 보입니다.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 1)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하시
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뤄진다는
견해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이 복
된 왕국으로 변화된다는 견해입니다.
- 2)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구약시대의 성전
제도, 제사들, 절기들 등 구약시대의
성전이 회복되고 짐승 제사가 다시 이
뤄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 3) 하지만 너무나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
석하는 것이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다면
영적인 해석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라. 역사적 전천년설(Historical

같이리라

[계 20: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희를 소멸하고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
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
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
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
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
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
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
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
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
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Premillinnialism)

- 1)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같이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 2) 다른 부분이 있다면, 천년왕국을 구약시대의 재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신약적 성격의 나라로 보는 점입니다.
- 3) 역사적 전천년설의 근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대적 사건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6. 심판

가.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1)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마 3:12).
- 2)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심

[마 3:12] 손에 킶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
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판을 맡기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요 5:22).

- 3)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거라고 증거했습니다(행 17:31, 고후 5:10).

나. 누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 1) 마지막 심판의 대상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에 속하며 마귀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이 이에 속합니다(계 20:10, 마 25:41).
- 2)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모두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계 20:12-13).

다.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 1) 마지막 심판날은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한 때입니다(요 5:28-29, 계 20:12-13).

[요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자를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고후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

13).

- 2) 마지막 심판은 단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을 정하사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행 17:31).

라. 무엇을 심판 받습니까?

- 1)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전 12:13, 롬 2:6).
- 2) 사람의 행위에는 모든 생각, 모든 말도 포함될 것입니다(마 12:36).
- 3)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요 3:18, 요 5:24).

마. 천국과 지옥

- 1) 천국
 -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마 12:28).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천국에 거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 5: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전 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 하지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영적
인 천국이지 실제적인 천국은 아
닙니다.
- 마지막 심판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모든 믿는 자는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벧후 1:11)
- 천국은 죄와 눈물과 죽음과 병과 저
주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
과 기쁨과 영광만 가득할 것입니
다(계 21:3-4),
- 천국은 획일적인 나라가 아닙니
다. 등급이 있는 나라입니다. 상급
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나라입
니다. 거룩한 성과 천국이 구분되
어 있듯이 성도들도 구분된 상급
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전 15:40-
41).

2) 지옥

-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
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
하시되

[요 3: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5:24] 내가 진실로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
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
로 옮겨졌느니라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
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
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
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에게 임하였느니라

[벧후 1: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의 영원한 나라에 들
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
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
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
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
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마 25:41, 계 20:10).

-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거할 것입니다(살전 1:9).
- 천국이 영원하듯이 지옥도 영원할 것입니다(막 9:43).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고전 15: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
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
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전 15: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
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
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
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
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
어가라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
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
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살전 1:9]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
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
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
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막 9:43] 만일 네 손이 너
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
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
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
고 지옥 까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라

조직신학반 교재

초판발행 2019. 9. 10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হল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